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교수 김 경 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대학원생 홍 정 하

I. 서론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기는 졸업 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취업과 저축, 차용, 절세 등 실제적인 재무관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개인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개념과 기술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의 후반기로 재무문제에 있어 의존적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거의 독립적인 소비행동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들은 소비에 대한 기술은 습득하면서 아직 저축이나 금전관리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Lowell, 1995). 신용카드의 발급증가와 마케팅 기술의 발달 등 소비촉진 요소는 늘어나는데 비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와 충동구매, 과소비, 신용 관련 범죄 등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국민은행 연구소, 2002; YMCA, 2001).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식수준, 재무관리 행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2년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가톨릭대 성심교정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식, 재무관리 행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 교육의 내용과 대상, 교육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관련문헌 고찰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행태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 중 대부분은 청소년의 화폐태도 등 가치관 분야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김정훈, 2002; 김정훈과 정혜정, 1996; 허경옥, 1997; 홍은실과 황덕순, 2001)이거나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시민단체나 금융권 연구소의 연구들(국민은행 연구소, 2002; YMCA, 2001)이다.

허경옥(2000)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하면서 빚을 지는 것과 빚을 갚는 것에 태도를 아울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소비자들이 신용문제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훈(2002)은 여대생과 주부들을 조사하여 돈과 신용에 대한 두 집단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부들은 돈을 안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반면 여대생들은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나 성공의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여대생들은 주부들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연구소(2002)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20대 남녀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대의 소비 및 금융행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2/3가 저축을 하고 있었고 월평

균 저축액은 32만원이었다. 또 한국의 20대들은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생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충동소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이나 일본 대학생에 비해 부모의존성향이 훨씬 강하고 신용카드 이용빈도도 높았다.

YMCA(2001)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 92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중 41%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율은 지난 2,3년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주로 의류·화장품 구입이나 교제유형비에 사용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응답자의 2/3 정도가 소비지출이 '매우 증가 또는 다소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 중 1/5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 중 41%와 39%가 신용불량요건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각각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도 23%에 이르고 있어 올바른 신용카드 이용과 신용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사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청소년의 재무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특히 캠퍼스 내의 신용카드 보급이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학생들의 신용문제가 가시화되어 대학생신용카드 관련 규제법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 대학내에서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것 외에도 각종 재무관리 관련 교육에 대한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강남규, 2002).

Baek(2001)은 미국 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문제에 대한 관심과 재무지식, 그리고 그들이 겪는 재무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재무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약간의 관심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1/4이 재무문제를 겪고 있고 1/3은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무문제의 내용으로는 카드부채 상환의 어려움과 충동구매로 인한 예산생활의 어려움을 들었다. 신용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63점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Baek는 재무지식 수준이 높고 재무행동이 긍정적인 집단에서 재무문제 경험도나 재무관련 불안이 낮음을 밝혀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관련 연구들을 보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재무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편은 아니나 재무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돈문제와 관련된 충동조절 능력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용카드의 일상화로 인해 신용의 이용 등 부채문제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재무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2명이다. 조사대상자는 인문학 분야와 생활과학 분야에서 개설된 3개의 자유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정되었는데 이들에게 배부한 210개의 설문지 중 202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202명 중 남학생이 21%, 여학생이 79%이고 학년별 구성을 보면 1학년이 21%, 2학년이 12%, 3학년이 36%, 4학년이 31%이다. 응답자의 소속학부는 인문사회계열과 생활과학계열이 각각 33%였고, 이공·자연계가 17%, 상경계열 그리고 기타가 1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52%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는 보유율이 29% 정도였다가 2학년 이후 보유율이 60% 정도로 갑자기 높아지고 있었다. 신용카드를 보유한 응답자 중 15%는 카드 대금을 1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도구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수준,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와 재무관리 행동, 그리고 기타 응답자 신상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재무관리 관련 지식은 재무설계 관련 내용 중에

서 대학생들이 현재 또는 졸업직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재무관리 행동은 계획 수립, 기록, 정보탐색, 충동통제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재무관리 태도는 인생목표 중 경제적 목표의 순위, 돈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경제적 자립의지, 그리고 신용이용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였고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재무관리 지식수준

표1은 대학생들 스스로가 평가한 자신들의 재무관리 관련 지식과 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항목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재무관련 지식수준을 5점 만점에 평균 2.4점, '거의 모른다' 수준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었다.

지식관련 항목에서는 주식투자, 신용불량과 소비자 파산, 세금관리,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고 합리적인 지출계획과 예·결산, 부동산 투자, 신용카드의 선택과 활용, 자동차 보험과 기타 손해보험 항목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신용카드 보유율이 50%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대출과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12%만이 잘 알거나 잘 아는 편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의 선택과 활용, 그리고 신용의 부정적 측면인 신용불량과 소비자 파산에 대해 '잘 아는 편이거나' 또는 '아주 잘 안다'라고 한 응답이 30% 남짓에 불과하였다.

성별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재무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3.8, p<.05$) 학년별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재무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2, p<.05$). 그러나 소속학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관련 지식수준

대분류	항 목	재무지식 수준(% , 점)					평균
		전혀 모름	거의 모름	보통	잘 아는 편	아주 잘 앎	
재무설계 기초	전 생애에 걸친 재무설계 요령	21.1	41.7	19.6	15.7	2.0	2.3
	합리적인 지출계획과 예·결산	5.4	25.0	37.7	27.5	4.4	3.0
저축 및 투자	여러 가지 저축 및 투자상품	15.7	41.7	21.6	18.6	2.5	2.5
	주식 투자	45.1	34.8	8.8	9.8	1.5	2.1
	부동산 투자	47.5	32.4	11.8	7.4	1.0	2.9
신용카드와 부채관리	대출과 부채관리	26.0	48.5	13.7	9.3	2.5	2.5
	신용카드의 선택과 활용	11.8	18.6	35.3	30.4	3.9	2.9
	신용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요령	11.3	23.5	32.4	26.5	6.4	2.4
	신용불량과 소비자 파산	17.2	21.6	28.4	27.5	5.4	2.2
세금관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관리	16.7	34.3	27.5	20.6	1.0	1.9
보험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19.6	38.7	24.0	15.7	2.0	1.9
	자동차 보험, 기타 손해보험	31.9	33.3	21.1	11.8	2.0	2.8
전체평균							2.4

2.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와 행동

먼저 인생목표 중에서 경제적 요인의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10개의 가능한 인생목표를 제시하고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택하게 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부자가 되는 것(50%)'이라는 항목은 10개의 목표 중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67%),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57%)'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90명이 이를 3대 인생목표의 하나로 꼽아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낮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라고 대답했으나 남자는 '부자가 되는 것(60%)'을, 그리고 여자는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61%)'을 2위로 꼽았다.

<표 2>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독립 의지

항 목	돈에 대한 관심/경제적 독립의지(% 점)					평균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많(높)은 편	아주 많(높)음	
돈에 대한 관심	0.5	9.3	22.5	47.1	20.6	3.8
경제적 독립 의지	2.0	10.3	13.7	35.3	38.7	4.0

다음은 돈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와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하고 싶은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돈문제에 '다소' 또는 '아주 관심이 많다'라고 답했고 경제적 자립의지도 74%가 '다소' 또는 '아주 강하다'라고 답하였다. 이 두 항목에 대한 성별, 소속학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 시기부터 돈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5, p<.05$).

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빌려서라도 우선 필요한 행동을 하겠다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응답자들은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91%, 자녀나 본인의 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61%, 기본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50%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주택구입이나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도 38%와 25%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친구나 애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4%였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비나 학비, 기본 생활비 등을 제외한 주택구입, 자동차 구입, 선물 구입 등에도 신용을 이용하겠다는 태도는 대학생들이 신용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신용이용에 대한 태도

항 목	N(%)
1.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96(50%)
2.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177(91%)
3. (자녀나 본인의) 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	119(61%)
4. 중고교생 자녀의 과외비가 필요한 경우	27(14%)
5.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49(25%)
6.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73(38%)
7. 마음에 드는 옷이나 가구를 사고 싶은 경우	72(37%)
8. 친구나 애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 경우	66(34%)
9. 주식투자 등 투자할 돈이 필요할 경우	14(7%)

다음에는 대학생들의 개인 재무관리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재무관리 행동은 표2에 있는 재무계획 수립, 재무기록, 정보탐색, 충동통제의 4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4개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5점 만점에 점으로 '그저 그렇다'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재무문제에서의 성공을 위해 저축이나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하거나 돈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재무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 학년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지출을 기록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t=11.1, p<.05$)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 때 재무관리 행동의 전체 점수가 낮았으나 3,4학년이 되면서 재무관리 행동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4.9,$

p<.05). 소속학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

항 목	평균점수
1. 나는 내 나름대로의 재무계획을 세운다	32
2. 나는 저축이나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한다	26
3. 나는 돈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27
4. 나는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34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태도, 행동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점수, 돈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적 자립 의지점수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돈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립의지, 재무지식, 재무행동의 세 점수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재무지식 수준과 재무행동 점수간에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경제적 자립의지는 재무관리 행동점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재무지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무지식, 재무태도, 재무행동간의 상관관계

	돈에 대한 관심	경제적 자립의지	재무지식
경제적 자립의지	.20**		
재무지식	.32**	.06	
재무행동	.50**	.17**	.48**

** : p<.05

V. 결론

본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들은 돈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제적 자립의지도 높았으나 재무지식 수준은 낮고 재무관리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이용에는 비교적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연체경험도 15% 정도로 나타나 신용카드 관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학생들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교육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대상은 성별이나 소속 학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기는 신용카드 보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돈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2학년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 문헌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기를 재무교육의 시기로 추천하기도 하나 그때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준비상태나 시간적 여유로 보아 심층적인 교육이 어렵다. 이보다는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졸업 후의 진로나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인 3학년이나 4학년 시기가 더 나아 보인다.

또한 재무관리 교육의 내용은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과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김경자, 1998)를 보면 소비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주식투자, 신용불량과 소비자 파산, 세금관리,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분야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이 지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합리적인 지출계획과 예·결산, 부동산 투자, 대출과 부채관리, 그리고 대학생들의 재무문제와 관련이 깊은 신용카드 관련 주제들이 교육내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지식 수준과 재무행동 점수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 재무관리 교육 활성화로 인한 재무지식의 증가는 재무관리 행동의 합리성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성할 미래의 가계와 사회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교양과목으로 재무관리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남규 역(로버트 매닝 지음). (2002). *신용카드제국*. 참솔.
2. 국민은행 연구소(2002). '20대의 소비 및 금융이용 행태' 조사결과 보고서.
3. 김경자(1998).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2호.
3.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권 3호.
4. 김정훈, 정혜정(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원광대 논문집*, 32권 2호.
5.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6. 송순영(1998). 신세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 소비자보호원 연구 보고서*.
7. 허경옥(2000).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소비자학 연구*, 11권 3호.
8. 홍은실, 황덕순(2001).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도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 YMCA 시민중계실(2001). '대학생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10. Baek, E.(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 Lowell, J.(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Y.; Penguin Books.